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
전통방식 그대로 (첨가물 0% 수작업 100%)
제주고소리술 오메기맑은술
제주술익는집 | 역사적가치가 크고 술맛이 좋다하여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SINCE 1989 창간 31주년
한라일보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漢拏日報 제9204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0년 9월 18일 금요일(음력 8월 2일)

올 추석 물가 급등… 우울한 한가위

제주상의 차례상비용 조사
재래시장 전년보다 9% ⬆
4인 가족 기준 25만9690원
긴 장마와 잦은 태풍 기인
"도민 체감물가 더 높을 듯"

제주상공회의소가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농수축산 품목이 전년보다 9.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상승은 긴 장마와 함께 잇따른 태풍내습이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이상국기자

역대 최장 장마와 함께 연이은 태풍으로 인해 농수축산물 가격이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올 추석 제수용품 비용이 예년에 비해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제주상공회의소가 제주지역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물가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차례상 제수용품 구매비용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9.2% 상승한 25만9690원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동향을 보면 과일류 6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지난해 추석명절 대비 10.0% 상승한 6만7840원이 소요 될것으로 파악됐다.

과일류 중 사과(5개)는 작년대비 19.3% 상승한 1만7500원, 배(5개)는 25.2% 오른 1만9200원, 밤(1kg)은 2.4% 상승한 1만500원, 곶감(10개)은 1.1% 오른 9100원선을 보였다.

다만 이중 하우스귤(1kg)은 6.5% 내린 7170원, 대추(300g)는 8.0% 하락한 4370원선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소류 8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지난해 추석명절 대비 14.5% 상승한 4만7210원이 소요 될 것으로 조사됐다. 시금치(400g)는 2.3% 오른 7670원, 젖은 제주고사리(400g)는 45% 인상된 7500원, 콩나물(1kg)은 작년대비 8.7% 상승한 1630원선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애호박(1개)은 43.7% 상승한 2630원선, 무(2kg)는 49.8% 오른 4000원선, 파(대파 1kg, 1단)는 31.7% 오른 5110원선, 표고버섯(150g)은 작년과 동결 수준인 1만670원선에 가격대를 형성했다. 도라지(국산 400g)는 보합세인 80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육란류 및 해산물류 7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지난해 추석명절 대비 8.5% 상승한 11만8300원이 소요 될 것으로 조사됐다. 육란류 중 국거리 소고기(500g)의 경우 1.8% 하락한 2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산적 소고기(600g)는 0.8% 내린 3만1080원의 가격선에서 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다. 돼지고기(오겹 600g)는 27.1% 상승한 1만9480원선이다.

해산물류중 어획량 감소로 인해 옥돔(1마리 국산)은 전년대비 18.4% 상승한 2만2500원선을 형성했다.

가공식품 5개 품목을 구매할 경우 지난해 추석명절 대비 1.3% 상승한 2만6340원이 소요 될 것으로 조사됐다. 가공식품류 중 밀가루(2.5kg)는 3140원, 두부(국산 4모)는 5190원, 청주(1.8ℓ)는 9790원, 약과(참쌀 300g)는 3020원, 송편(500g)은 5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주상의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실제 도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버스준공영제 지원금 1000억' 도의회 도마 위
"코로나시대 고통분담 조차 없다"

"올해 민간보조금 30% 삭감
운수업체 보조금은 늘어나"

2017년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맞물려 도입된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고 있는 막대한 예산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코로나19시대 고통분담 없이 지속적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절감 대책 마련 및 효율화 계획 수립을 제주자치도에 주문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속개한 제387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 관련기사 3면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행자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행정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보조금 30%를 삭감했는데 운수업체 보조금은 오히려 증액된 부분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올해 지원금이 1000억원을 넘긴다"면서 전체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해서 고통을 분담하는데 운송업체 보조금은 배제된 이유를 추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지금 시스템이면 손실이 날 경우 다 보전해줘야 한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면서 "전체적인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며 효율화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서홍·대륜동)도 "도민이 세금내서 결국은 버스운송회사 먹여살리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기에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환도위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올해 버스 이용객이 줄고, 승객 없이 빈차로 다닌다는 민원을 전하면서 노선 조정 등 효율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닌 예산을 줄이려는 대안과 상생 방안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자위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이동1·건입동)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 제주도가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21대 국회 첫 지역 현장국감 진행될까

내달 열리는 21대 첫 국정감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년과 같은 형식으로는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현장 국감을 진행할 지 여부를 비롯해 참석자 수 제한 등 방식 마련에 각 상임위원회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21대 첫 국정감사를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현재 국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의원회관 세미나실 예약과 이용 제한, 외부인 청사출입 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국정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내달 4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지난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주도를 방문,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국감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 시찰에 나섰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초·중·고교 21일부터 2/3 등교

도교육청 학사일정 조정

제주 초·중·고등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이 등교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 밀집도를 2/3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교육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을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 학교가 23일부터 등교수업을 재개하면서, 제주서도 이에 맞춰 밀집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학사일정이 초등학교 3~6학년의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감안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는 것을 원칙으로 2/3 밀집도가 유지된다. 특수학교는 밀집도 조치를 학교 자율로 결정토록 했으며, 유치원은 6학급 이하 유치원에 한해 전체 등교가 가능하다.

또한 초·중·고 가운데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학교에 대해서도 전체 등교가 가능토록 했다. 대상학교는 총 58개교(초 48교·중 9교·고 1교)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밀집도 완화를 기반으로 대면 및 비대면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와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방역과 예방을 철저히 하고 도외 방문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가정학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행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70년 장인정신의 한라산소주 Since 1950
SINCE 1950
한라산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거리는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운, 한라산과 넉넉하고 건강한 한가위 되세요

한라산물 순한소주 360ml 6병 / 17.2%
*판매처: (제주도 내)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일반마트, 편의점

한라산 허벅술 720ml / 35%
*판매처: (제주도 내)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일반마트

한라산21 360ml 6병 / 21%
*판매처: (제주도 내)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일반마트

한라산17 360ml 6병 / 17%
*판매처: (제주도 내)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일반마트
*판매처는 각 매장의 재고의 재고수량에 따라 판매가 상이할 수 있으니 구입 전 사전 문의 바랍니다.
(주)한라산은 순수향토자본으로 운영되며 매년 당기순이익의 30%를 제주지역에 환원합니다.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위험을 높입니다.
단체주문환영
제주지역 판매처 | 도내 소매점, 농협, 대형마트 등
구입문의 | ㈜한라산 064-751-6671